

• 117p 첫 번째 줄

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면 된다. 위 14습관을 적용하면서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풀 수 있을 만큼 풀면 된다. 서점 가면 '고1 모의고사 모음'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이 있다. 그중에 맘에 드는 걸 골라서 풀면 된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까진 시간이 있기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위 14습관을 적용하는 걸 추천한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건 생각보다 독해력, 사고력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 네가 시간이 많은 중학생이라면, 책도 같이 읽으면서 배경지식도 늘리고 독해력, 사고력을 키워 나가길 추천한다.

기출 문제 → 기출 문제

• 141p 2번 선지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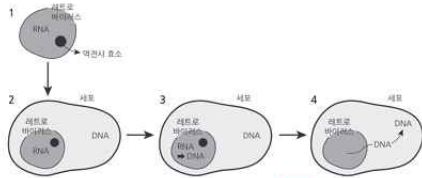
→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박제가와 이덕무의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각 관점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관점이 지닌 → 각 관점이 지닌(띄어쓰기 오류)

• 241p 4번 선지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어려웠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맞다고 볼 수 있는 선지였다. 먼저 ㉠을 판단해보자면,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 DNA의 일부이므로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일단 ㉠이 어떤 돌연변이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은 다른 세포로 들어간 후, 자신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 RNA를 DNA로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DNA를 세포의 DNA 속으로 끼워 넣는다. 그리고 이후에 세포를 조종한다.



레트로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다. ㉠이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만 한 부분은 그림에서 4번 밖에 없다. 1, 2, 3번의 상황에서는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은 자체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번 선지는 틀린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번의 상황에서는 가지지 않지만, 4번의 상황에서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 ㉡만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 답 : ㉠

[수정]

→ 일단 1, 2, 3번 상황에서 ㉠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자체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4번 선지는 틀렸다. 4번처럼 말하려면 1, 2, 3번 상황에서도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게, 4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엄밀하게 말하면 4번 단계에서도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의 DNA가 생명체의 DNA에 '삽입'이 될 뿐이므로, 생명체의 DNA 자체를 갖고 있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이 생명체의 DNA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에서 특정 재조합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숙주의 유전자 일부가 ㉠에 편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두고 '레트로 바이러스가 숙주의 유전 정보 일부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므로, 4번에서도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다.

• 278p ‘파란색’ 단어가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 파란색 단어들에 신경 쓰면서 계속 상상한다.

‘고유의’라는 단어와 ‘하나씩’이라는 단어에 파란색 칠 하기.

• 279p 같은 문장 반복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 다른 물체에 가려짐,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등을 고려하면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겠다. 상상하고, 납득한다.

이렇게 수정.

• 313p 4번째 줄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 나는 이 문장을 보고 ‘왜 아까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켰던 건지’ 이해가 됐다. 역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 이미지나 노이즈가 적당히 추가 되어 있는 **중단 단계**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이즈 이미지, 확산 이미지에 추가되어 있는 노이즈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활용되고,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 이미지, 확산 이미지에 추가되어 있는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중단 단계 → 중간 단계

• 335p 5번 선지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틀렸다.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게 아니라, '시점 변환'을 한 것이다.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은 '시점 변환'을 한 게 아니라, '외부 변수'를 조정한 것에 해당한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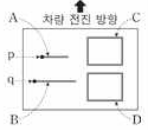
→ 아니다.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은 ㉡에서 이미 보정된 상태다. 왜냐하면 ㉡은 '왜곡 보정'을 마친 영상이기 때문이다.

- 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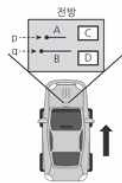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지금 <보기>가 무슨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기>에서 말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orbikr 335

[수정]

→ 아니다. ㉡은 광각 카메라와 카메라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상의 왜곡'을 이미 보정한 상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의 왜곡은 '영상 중심부가 불룩해지고 외곽이 심하게 휘는' 현상으로, 거리 차이에 따라 멀리 있는 격자가 더 작아 보이는 '원근 효과'와는 구분된다. 격자판 윗부분이 작아 보이는 현상은 렌즈 고유 곡률로 인한 왜곡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투영할 때 생기는 원근 효과이므로 ㉡이 아닌 ㉢(시점 변환)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에서 렌즈 왜곡 때문에 격자가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비로소 보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53p 3번째 박스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과 ㉡ 모두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주장했고, ㉡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주장했다. 정답은 ③번이다.

안정을 달성하고자(띄어쓰기)

• 353p 5번째 박스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맞다. ㉠은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사용하고 있고, ㉡은 '완충자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 답 : ③

자본을 이용한(띄어쓰기)

• 373p 2번째 박스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 맞다. 바젤 기준을 자국에서 법으로 정하고 따라야, 자국의 재무 건전성을 다른 나라에 인정받을 수 있다.

· 답 : ③

건전성을 대외적으로(띄어쓰기)

• 410p, 동일 문장 중복 삽입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는 계속 뿌려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달러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35달러를 금 1온스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요청하는 사람들마다 계속 금을 바꿔주다 보니까, 이제 교환해줄 수 있는 금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이다.

바로 위 박스랑 똑같은 문장 중복임.

'1970년대 초에 미국은 ~ '이 문장 대신에 아래 문장 삽입.

[수정]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 421p, 2번째 <보기> 분할 분석 해설 내용 수정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금리를 인상하니까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 자기 돈을 다 넣어놓으려고 했다는 뜻이다. 왜 그런 걸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은행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1%인데, 미국 은행은 5%다. 그러면 당연히 내 돈을 달러로 바꾼 뒤에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A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많은 외국 자본들이 A국 은행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건 A국 입장에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A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통화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외국 자본이 A국으로 들어온다는 건 A국의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통화량을 줄이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상승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

[수정]

지금 A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통화량을 낮추려고 하지만,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A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그만큼 새로 발행된 A국 화폐가 시중에 풀려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 버린다.